

1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

A. 공통의 상속(유업) vs. 상급(보상)의 성경적 구분

성경은 구원과 상급을 섞지 않습니다.

- **공통의 상속(유업)**: 은혜로 받는 선물, 빼앗길 수 없음, **이기는 자에게 주심
 - 영존하는 생명(요 10:28-29)
 - 성령님의 봉인(엡 1:13-14)
 -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“하늘에 간직”(벧전 1:4-5)
- **상급(보상)**: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‘칭찬/상’
 - “각 사람이 자기 수고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”(고전 3장 문맥)
 - 어떤 이는 “손해를 당하리라...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”(고전 3:15)

결론적으로:

- 구원(유업)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.
- 상급은 잃을 수 있고, 심지어 “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” 형태의 경고가 성경에 존재합니다.

B. 원어 분석 🔍

핵심은 “왕관”에 쓰인 단어입니다.

- **왕관(관)**: **στέφανος (stéphanos, 스테파노스)**
“승리자에게 주는 화관/월계관(보상, 영예)”의 낱앙스가 강합니다. ([Bible Hub](#))
- **왕관(왕권 표지)**: **διάδημα (diádēma, 디아데마)**
“왕권의 관(왕의 표장)”에 가까운 단어이며 계시록에서는 용/짐승/그리스도의 ‘많은 왕관’ 같은 통치 상징에 쓰입니다. ([Bible Hub](#))

C. 그렇다면 계 3:11의 “왕관”은 어디에 속합니까?

계 3:11의 ‘관(마라톤의 월계관)’은 ‘공통 유업’이 아니라 ‘상급’ 쪽에 놓이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. 이유는 3가지입니다.

1. 단어 자체가 ‘승리의 관(보상)’(**stephanos**)입니다. ([Bible Hub](#))
 - 계 3:11은 **diadema**(왕권의 관)가 아니라 **stephanos**(승리의 관)입니다. 이 한 단어가 방향을 정합니다.
 - 구원의 자격(생명)을 빼앗는 말이 아니라, 경주 후 받는 보상(상급)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.
2. “굳게 붙잡아”라는 권면은 경주/인내/신실함의 맥락이며, 이 맥락은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왕관=상급과 연결됩니다(딤후 4:8, 약 1:12, 벧전 5:4, 고전 9:25, 살전 2:19 등).
3. 성경은 상급에 대해 “잃음/손해/탈취”를 경고합니다(요이 1:8, 골 2:18, 고전 3:15).
4. 계 3:12.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공통 상속 앞에 기록 - 상급을 언급한 후, 공통 상속을 약속하는 문맥

즉, 계 3:11은 “구원을 지키라”가 아니라 “상급을 놓치지 말라”입니다.

2 사무엘기상 14장3절. 아히야의 예봇

A. 삼상 2장의 심판 예언은 “즉시 후손 0명”이 아니라 “남아 있으나 비참”을 전제합니다

삼상 2:36은 심판의 결말을 “네 집에 남은 모든 사람”이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. 즉, 본문 자체가 이미 ‘남은 자’의 존재를 전제합니다. (keepbible.com)

또 “노인이 없게”(삼상 2:31-32) + “꽃다운 나이에 죽음”(삼상 2:33) + “빵 한 조각을 구걸” (삼상 2:36)이라는 묘사는, 가문의 생물학적 소멸보다 제사장 집안의 힘(팔/arm)과 존귀의 절단을 중심으로 심판이 진행됨을 보여 줍니다. (keepbible.com)

B. 예언 성취

성경이 보여 주는 흐름은 “한 방에 멸족”이 아니라, 선고 → 표적 성취 → 남은 자의 비참 → 직분 박탈의 구조입니다.

- 선고: 삼상 2장(하나님의 사람), 삼상 3장(사무엘에게)에서 엘리 집 심판 확정 (keepbible.com)
- 표적(즉시 성취): 흠니·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음(삼상 4:11) (keepbible.com)
- 그러나 “남은 자” 존재: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 “이가봇”이라 부름(삼상 4:21) (keepbible.com)
- 사울 시대에도 엘리 계열 제사장이 있음: 아히야가 예봇을 입고 등장(삼상 14:3) (keepbible.com)
- 늑에서 제사장 무리가 도륙: “예봇 입은 85명” 피살(삼상 22:18) (keepbible.com)
- 마침내 제사장직 박탈로 ‘말씀 성취’ 선언: 아비아달(아비아달/Abiathar) 축출(왕상 2:27) (keepbible.com)

3 삼상 8장 1~3절. 사무엘이 재판관으로 세운 두 아들

A. 그럼 사무엘은 “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을” 세운 것인가요?

성경이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.

- 사무엘이 직접 임명한 것은 맞습니다(삼상 8:1).
- 그러나 그 임명이 곧바로 “사무엘의 사욕/야망”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.
 - 사무엘은 이후 자기 명예를 지키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, 이 일로 백성이 요구하자 주께 기도하며(삼상 8:6), 주의 말씀을 받아 경고를 전하는 사람입니다(삼상 8:10 이하).
- 오히려 본문은 “사무엘의 가문 세습”을 왕정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기보다, 노쇠한 지도자가 재판 업무를 분담하려 한 현실적 조치(브엘세바 지역 재판 / 사사기의 재판관들과는 다름)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(삼상 8:2; 7:15-17).

결론적으로, 임명 자체가 ‘하나님 뜻이 아니다’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, 다만 사무엘도 ‘사람’이므로 그의 결정이 완전무결한 제도적 해답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허점을 통해 백성의 속마음까지

드러내십니다(삼상 8:7).

B. “아들들이 이미 심각했는데도 세웠다”는 지적은?

삼상 8:1-3은 짧은 서술 안에 사건을 압축합니다.

본문은 “임명하기 전에 사무엘이 그들의 타락을 알고도 강행했다”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8:4에서 장로들이 와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.

따라서 성경적으로는 ‘알면서도 임명했다’까지는 말하지 않고, ‘임명되었고, 결과적으로 그들이 타락하여 재판이 망가졌다’까지가 확정입니다.

- 임명 당시와 임명 후의 아들들의 모습이 다를 가능성이 열려 있음.
- 즉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표적은 “사무엘의 행정”보다 ‘공의가 돈에 의해 굽어지는 것’입니다.

C. 왜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들이?

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매우 날카롭습니다.

1. 경건은 유전되지 않습니다

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확증되었어도(삼상 3:19-20), 그의 아들들은 “그의 길로 걷지” 않았습니(삼상 8:3).

즉 신앙의 외피·가정 환경이 사람을 자동으로 바꾸지 못합니다.(구원과 성화는 각자의 몫)

2. 지도자의 공적 성공과 가정의 영적 상태는 자동 연동이 아닙니다

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 줍니다(엘리의 두 아들, 다윗의 자녀들 등).

이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.

“사람을 의지하는 체계는 결국 무너진다. 그러므로 ‘주’께서 다스리셔야 한다.”

3.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진짜 뿌리

표면 이유는 “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타락했다”이지만, 하나님은 그 요구를 ‘나를 버림’으로 규정하십니다(삼상 8:7).

즉 이 사건은 “사무엘 집안의 문제”를 넘어서, 백성의 마음이 ‘보이는 왕’을 더 신뢰하려는 배교성(背敎性)을 드러내는 문맥흐름입니다.

4 삼상 14장15절. 두 떨림

본문의 문맥적 해석

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:

삼상 14:15의 “두 떨림”은

- (1) 블레셋 진영 전체에 번진 공포·혼란(심리적 떨림)이며,
- (2) 동시에 본문이 명시하는 땅의 진동(물리적 흔들림)을 포함하고,
- (3) 그 총합이 “심히 큰 떨림” 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자연적 패닉/심판으로 규정됩니다. ([Bible Hub](#))

그래서 “지진인가요, 표현인가요?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.

- 표현(두려움)입니다: “host... garrison... spoilers... all trembled” (사람들이 떨었습니다). ([Bible Hub](#))
- 물리 사건입니다: “the earth quaked”(땅이 흔들렸습니다). ([Bible Hub](#))
- 원인은 하나님입니다: “trembling of God”(하나님께 속한 떨림). ([Bible Hub](#))